‘무조건 줄투표’ 이번엔 깨지나

■광주일보 광역·기초단체장 여론조사 분석해 보니

유권자들 “정당보다 인물·공약보고 찍기” 변화 조짐

광역선 민주당 후보 크게 앞서도 기초단체장은 접전

2006년 광주시장 선거 당시 민주당 박광태 후보의 득표율은 51.7%, 열린우리당 조영택 후보는 34.1%였다.

당시 광주시의 민주당 구청장 후보의 득표율 평균은 47.4%, 열린우리당 구청장 후보들은 29.5%로 양당의 시장 후보 득표율과 엇비슷했다. 시장선거 투표지에 1번(혹은 3번)을 찍은 유권자는 대개 구청장 투표에도 1번(혹은 3번)을 찍은 셈이다. 흔히 ‘줄 투표’로 불리는 이런 현상은 과거 지방선거에서 어김없이 되풀이돼 왔다.

앞서 2002년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선거의 경우 민주당 박광태 광주시장 후보가 46.8%, 민주당 박태영 전남지사 후보가 57.8%를 득표했다.

이때 광주지역 민주당 구청장 후보의 득표율 평균은 57.3%, 전남지역 민주당 기초단체장 후보의 득표율 평균은 49.2%였다. 선거전문가들은 “지방선거에선 선택해야 할 후보가 여러 명인데 반해 유권자들이 후보자 개개인에 대한 정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당만 보고 찍는 현상에서 비롯된 게 줄 투표”라고 설명한다.

이번 선거에선 다른 양상이 나올지도 모른다. 광주일보가 최근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기초단체장 지지율과 광역단체장 지지율에는 높은 차이가 났다.

지난 18일 광주시장·전남지사 지지율 조사에서는 민주당 강운태 광주시장 후보가 61.1%, 민주당 박준영 전남지사 후보가 63.5%의 지지율을 얻었다. 2위 후보들과는 무려 52.1%에서 56%포인트 차이가 났다.

하지만 지난 21~22일 조사한 광주 서구와 남구·광산구청장 후보별 지지도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이 평균 26.7%의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와 지지도 차이가 무려 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이들 민주당 구청장 후보들은 2위 무소속 후보 및 다른 정당 후보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었다.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은 광역단체장 후보와 달리 40% 이상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광역단체장 지지율과 크게 달라진 것은 민주당 소속 현직 기초단체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지역 표심이 크게 갈라진 탓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에 대해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민주당의 공천 후유증에 대한 민심이반 현상과 일당 독점 폐해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면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무조건 당만 보지 말고 공약이나 업적 등을 따져보고 찍자’는 생각이 유권자들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당과는 상관없는 교육감·교육의원 선거에서 ‘줄 투표’ 현상이 나타날 것인지도 관심이다. 지난 18일 본보가 조사한 광주시교육감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투표용지 게재순위 다섯번째인 안순일 후보가 17.2%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고, 네번째인 이정재 후보가 13.1%로 오차범위 내에서 뒤쫓았다.

민주당의 기호 2번을 연상하게 하는 두번째를 뽑은 김영수 후보는 6.3%의 지지율에 그쳤다.

전남도교육감의 경우 게재순위 두번째인 장만채 후보가 20.6%로 다른 후보들을 압도, ‘두번째 프리미엄’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광역단체장 선거는 아직도 중앙 정치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것 같지만,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은 인물 또는 공약 등을 따져보는 유권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권일·박진표기자 cki@kwangju.co.kr

24일 오후 광주공원 광장에서 광주시 남구 무소속 연대의 남구청장 후보와 지방의원 후보들이 합동유세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남구 ‘무소속 연대’ 합동유세

광주지역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남구에 출마한 6·2 지방선거 무소속 후보들이 24일 합동유세를 갖고 세몰이에 나섰다.

황일봉 남구청장 후보, 이상복·이병조·정남석 광역의원 후보, 김관중·김선욱·김황영·박용화·위성환·하주아 기초의원 후보 등은 이날 오후 광주 남구 광주공원에서 첫 합동유세를 갖고 “남구는 기존 선거에서 무소속 국회의원을 두 번이나 선출했다”며 “이번에도 정당보다는 인물 위주의 선택을 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합동유세에는 무소속 후보 지지자 1000여명이 참석, 무소속 돌풍을 기대하게 했다. 무소속 후보들은 기호는 다르지만 노란색 유니폼과 선거 홍보물 디자인 등을 통일해 선거운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또 선거운동 기간에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자원봉사를 함께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與 “잠수함 탐지 모래사장에서 바늘찾기”

野 “어뢰 공격 후 모선 귀환 확률 0.81%”

천안함 특위 시각차만 확인

국회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위의 24일 첫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민·군합동조사단의 침몰원인 조사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발표 내용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질의하는 등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망망대해에서 잠수함 탐지는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라며 “미국의 잠수함 탐지 수단을 전부 동원해도 미국으로 침투하는 적 잠수함의 50%만 탐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효재 의원은 천안함 분리 장면을 담은 열상감시장비(TOD) 영상의 존재 여부에 대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이 같은) TOD 녹화화면이 있으며, A대령과 B대령이 그것을 봤다’면서 ‘국방부에서 은폐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김동성 의원은 어뢰 추진체 내부에 쓰인 ‘1번’이라는 한글 표기와 관련, “북한에서 발간되는 ‘조선말대사전’을 찾아봤더니 ‘번’이 분명히 있다”며 “탈북자 출신하고도 얘기해 봤는데 조립품의 경우 1번, 2번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합조단 발표에 대한 의문을 조목조목 파고들었다. 신학용 의원은 중어뢰의 수중폭발에 따른 물기둥(버블제트)에 대해 “물기둥이 100m 정도면 낙차가 얼마나 큰지 아는가”라며 “그러나 (낙차에 따른)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생존자 중에서도 물벼락을 맞았다는 사람은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선숙 의원은 천안함 침몰시 속초함, 링스헬기, 초계기인 P3C가 출동했던 점을 지적, “확률적으로 계산해보니, 그것들을 모두 다 뚫고 잠수정이 공해상 모선에 도착할 확률은 0.81%”라며 “링스헬기도, P3C도, 속초함도 무용지물로 서해안에서 유사한 어떤 사고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자백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영선 의원은 침몰사고가 난 해역의 좌표에 대해 “국방부에서 찍어준 KNTDS 좌표와 해군이 발표한 좌표가 위도, 경도 다 차이가 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여야 北風 ‘선거개입 가능성’ 공방 가열

민주 “정부·여당, 천안함 선거에 악용” 내부문건 공개

한나라 “일상적 보고를 비밀인 양 폭로…정략적 처사”

여야는 24일 천안함 사태에 따른 여권의 의도적인 ‘북풍’(北風) 조성 가능성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북풍을 통한 한나라당의 선거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관련 문건을 공개했으나 한나라당은 “정상적인 일일보고를 놓고 진실을 호도하지 마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 정권이 자신들의 주장과 달리 천안함 사고를 정략적으로 선거에 활용하면서 이를 통해 ‘노풍’(盧風)을 차단하려고 한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한나라당 종합선거상황실이 작성했다는 지난 22,23일자 ‘종합상황보고’ 문건을 공개했다.

송 후보가 문제삼은 부분은 문건에 나오는 “노풍이 확산되지 않도록 재빨리 세간의 관심을 다른 이슈로 전환시켜야 한다”, “천안함 이슈를 국가안보 이슈로 규정해 국민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 “천안함을 선거 유세에 활용하지 않겠다던 입장을 바꾼 것은 최선의 방편이었다는 의견”이라는 등의 문구들이다.

문건에는 “정부와 당이 지나친 우편향적 발언과 북풍에만 올인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균형잡힌 정책정당, 합리적인 보수정당 이미지 부각에 힘을 쏟아 부동층을 끌어내는 전략 구사가 필요하다”는 표현도 담겼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안형환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자료 어디에도 천안함 사태를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문구는 없으며, 천안함 사태를 국가안보적 이슈로 규정해 국민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 아니냐”며 “민주당이 선거에서 밀린 나머지 거짓주장을 하며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안 대변인은 “정상적인 일일보고 내용에 대해 마치 엄청난 비밀이 드러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야말로 선거용 정략적 목적에 따른 처사”라며 “민주당은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정책정당으로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리더&피플
6.2 지방선거
우리지역 후보자 검색
이젠!! 휴대폰으로 하세요!!
휴대폰 3654+무선인터넷 키
SHOW NATE
후보자 등록문의 : 02-2677-7116